

제5회 순수필문학상 당선자 조현숙 수필가

당선작 '풍락초' 선정... 18일 시상식 · 순수필동인지 제7집 출판기념회 개최

전주에서 활동하는 '순수필 동인지'가 주관하는 2023년 제5회 순수필문학상 전국 공모 당선작이 가려졌다. 수상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수필가 조현숙 씨. 당선작은 '풍락초'가 선정됐다고 순수필 동인지가 밝혔다.



조현숙 수필가

순수필 동인지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응모된 작품은 102편에 총 204편. 예년에 비해 응모 편수는 다소 적었지만 작품 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은 응모자 20명의 작품 29편. 29편의 작품 속에는 순수필 동인들이 추구하는 문예수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형진 문학평론가는 "2차 본심에 올라온 29편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은 결과, 이중 '물레 한 이삭', '고립 사이 빛', '노을, 별을 품다', '풍락초' 등 4편이었다"며 "이 4편은 수필작품으로서의 우수성은 물론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하여 어느 한 작품을 추켜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김형진 심사위원은 "당선작을 고르기 위해 다시 4편의 작품을 톺아 읽기 시작한 결과 '물레 한 이삭'에서 먼저 눈길을 잡은 것은 문장이었다. 깔끔하면서 속도감 있는 문장이 눈에 들었다.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두 인물의 대비를 지그재그식 구성을 통해 이끌어가는 전개에도 마음이 끌렸다. 오랜 기간 간병하던 후두암 환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서둘러 이사를 감행한 화자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세타코 아저씨.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아저씨를 통해 자아를 뒤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을, 별을 품다'는 화자인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와 함께 낙동강 하구 다대포를 찾는다. 화자에게 낙동강 하구 다대포는 추억이 남다른 곳이다. 젊은 시절의 추억은 물론 아들이 어릴 적에 왔던 추억 또한 뚜렷하다. 그 추억을 더듬어 지금은 손자와 함께 왔다. 손자에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렸던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백사장을 지나 갈대밭 길에 들어섰을 때 하구 정비로 인해 옛 추억들이 조각나 있음을 느낀다. 해 질 녘, 갈대밭 길 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은 화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일몰을 감상한다. 노을이 스러진 뒤 떠오르는 별. 화자, 아들의 뒤를 이을 손자가 큰 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녹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풍락초'의 화자는 카페 통유리창을 통해 위태로운 갯바위 위에서 풍락초를 건져 올리는 여인을 보고 있다. 어촌계에도 속할 수 없는 여인이 바다에서 건지는 고된 삶의 모습. 여인을 보며 떠올리는 어머니의 삶. 세상에 떠밀려 파란 난 어머니의 삶이 어촌계원이 될 수 없어 풍락초를 건지는 여인의 모습과 겹친다. 여기에 이르면 파랑 많은 바다에서 떠도는 풍락초는 거친 세상에 떠밀려 살아온 어머니면서 갯바위 위에서 고되게 풍락초를 건지는 여인

역시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카페 통유리창을 통해 그 여인에 집중하고 있는 화자 역시 그에 동화된다. 쉽게 읽히면서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는 문장이 매력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에 올라온 4편은 어디에 내 놓아도 한자리할 만큼 당당했다. 그러나 당선작은 한 편. 최종적으로 주제 표출 방법, 구성, 문장 표현 등의 문예적 요소를 따지며 뽑은 결과 끝까지 남은 작품이 '풍락초'였다며 제5회 순수필문학상 당선작으로 '풍락초'가 선정됐다고 했다.

조현숙씨는 "지난봄, 바닷물결이 험 없이 굽실거리는 영덕 강구항에서 그 여인을 봤다"며 "너울이 물머리를 세우며 덩벼드는 높직한 갯바위에서 파도에 뜬 채 떠밀려 오는 풍락초를 건지고 있다. 물에 뱃짓이 피기 시작하면 꽃 대신 미역을 따는 갯마을 사람들. 수년 전, 동생네가 영덕으로 부임해 갔을 때, 첫날 한 일이 한가득 쌓인 처렁처렁한 미역을 다듬는 일이었다. 퍼런 미역밭에도 속하지 못한 그 여인은 삶의 바다에 불어오는 슬픈 파랑을 고구라 지면서 건넌 저의 시간인 양 애썼다. 그러니 쓰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라며 글의 소재가 '풍락초'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잘 써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잘 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순간에도, 쓰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다. 종일 글 쓴다고 목과 허리에 덕지덕지 붙인 파스는 내 삶을 성실하게 퇴고하려는 증표 같다. 글쓰기를 핑계로 날마다 허술해지는 아내의 자리를 맡없이 채워주는 남편에게 고맙고, 상의 엄정한 무게를 새기면서 순정한 글을 향해 착실히 걸어갈 것이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순수필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전주 백송회관 3층 대연장에서 순수필 제7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다.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창작지원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김재훈 기자

프랑스에 울린 천사들의 목소리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어린이국악단, 다채로운 무대 선보여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국악단이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세인트오딜레 공연장의 공연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세인트오딜레 공연장에서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를 시작으로 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무궁화, 부채 입춤, 국악단의 속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합창단의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등의 순서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했다.

일부 관객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맑아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장르인 한국의 관소리를 처음 접해 신선했다. 또 눈과 귀를 사로잡는 몰입감 있는 무대였다"고 극찬했다.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에는 쿠르브루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리랑, 무궁화, 고향의 봄, 오 상펠리제, Sing Sing Sing, 다이너마이트와 어린이국악단의 속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등으로 구성된 두 번째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익숙한 노래인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할 때는 초등학교생들이 객석에서 뛰어나와 같이 무대를 구성하는 등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공연이 마무리되고 해외공연단원들과 초등학교생들 간의 선물 교환 및

7일 디종 시나고 고교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울산아가씨 그리고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 등 총 3부로 진행되고, 울산아가씨 무대는 현지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동서양 문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 공연으로 7일 오후 6시, 디종의 페아트르 드 페이영 홀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바람의 손길, 아리랑, 무궁화, 부채입춤, Kyrie, Dona nobis pacem, 고향의 봄, Sing Sing Sing, 다이너마이트, 오 상펠리제, 울산아가씨와 어린이국악단의 사랑가, 속대머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등 총 6부로 진행되고 해외공연 대장정을 마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쇼핑 페스타' 10~12일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 오거리 광장서 라이브 방송 · 이벤트 등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0~12일 3일간 '2023 전주 쇼핑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 쇼핑트래블라운지 운영,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발굴 등 전주 원도심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의 상징적인 공간인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축제를 진행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인플루언서 활용 업체별 라이브 방송, 관객참여형 무대공연, 시식 및 체험 홍보부스 운영 등이 있다.

또한 모든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기대형 이벤트, 객사 내 상점 결제 영수증 이벤트, 거리 NPC 이벤트, 경품 스크래치 카드 증정 이벤트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ESG 실천 및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중교통 방문 이벤트로 진행된다. 대중교통을 탑승해 '전주 쇼핑 페스타'에 참여하고 탑승한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겨두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페스타는 소비촉진을 통한 원도심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



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및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청 김인주 안전정책팀장, 한국화 첫 개인전 열어

진안군청 김인주 안전정책팀장이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마이산북부 관광정보센터 2층 수목문화 미술관에서 '수목과 나의 꿈'을 주제로 한국화 첫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은 7일 오후 5시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일주일여 동안 수목화 20점을 전시된다.

김 팀장은 녹록지 않은 삶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조심스럽게 꿈에 대한 도전을 거친 끝에 수목

화를 시작할 지 13여년만에 8차례의 단체전을 거치고, 비로소 첫 개인전을 갖게 됐다.

김인주 팀장은 1993년 진안군 부귀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6급 승진 후 신설부서 축제팀장, 체육팀장, 문화예술팀장 등을 거쳐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며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행정의 달인이기도 하다.

김 팀장은 "고향이나 다름없는 진안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 이유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좋아하는 수목화와 평생 동반자의 길을 가려는 나의 약속을 위해서"라며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